

4. 범아일여(梵我一如), 신과 나는 하나

1) 가르쳐질 수 없는 존재의 신비

소 - 인도시편

복잡한 아그라 큰길 한 켠에 비켜서서
성자 비베카난다의 동상에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네
난데없이 흰 소가 한 마리 들어 왔네
렌즈에서 열린 눈을 떴고
큰길 한복판에 어슬렁거리는 흰 소를 보았네
행인들이 흰 소를 비켜갔네
자전거들이 흰 소를 비켜갔네
릭사들이 흰 소를 비켜갔네
택시들이 흰 소를 비켜갔네
버스들이 흰 소를 비켜갔네
자전거와 릭사와 택시와 버스를 뒤따르는
술한 차량들이 흰 소를 비켜갔네
성자의 발치 아래 모락모락 김이 나는
큼직한 똥 한 덩어리 싸놓고
어슬렁
어슬렁
어슬렁거리는 흰 소만 우뚝했네
성자 비베카난다보다 우뚝했네
성산 히말리아보다 우뚝했네
무뚝뚝한 흰 소의
뿔, 우뚝했네!

소똥 - 인도시편

그 물건이 땅바닥에 주르르 흘러 떨어지는 동안, 긴 꼬리는 포물선을 그으며 허공을 떠받치고 분홍빛 향문은 둥글게 열려 있다.

그 물건이 푹, 푹, 푹, 떨어지며 다정히 포개져 막 찌넨 쭉쭉빵처럼 모락모락 더운 김을 피워 올릴 때, 대기의 온도도 내 사랑의 체온도 몇 도쯤 올라가고 길을 걷던 이들의 시선은 사뭇 조심스러워진다.

그 물건을 내려놓은 임자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길모퉁이를 돌아 어슬렁어슬렁 사라지면, 그 물건과 그 물건을 내려놓은 임자는 분리되지만, 둥글게 열려 있던 분홍빛 향문은 내 망막에서 헛사리 지워지지 않는다.

나는 그 물건의 이름을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발음해 본다, 소똥! 가슴이 빠근하다, 다시 발음해 본다, 소똥! (잘못 발음했지만 역시 빠근하다) 둥글게 열린 내 입술이 분홍빛 향문처럼 열려 다물어지지 않는다.

* 가르쳐질 수 없는 것을 배움에 대하여:

어느 뛰어난 학자 집안에 슈베타케투라는 한 소년이 있었다. 소년의 아버지는 어린 아들 슈베타케투를 가르치기 위해 깨달음을 얻은 한 스승의 집으로 보냈다. 소년은 스승의 아쉬람에서 수년 동안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웠다. 그는 모든 베다를 기억하였고, 그 당시에 접할 수 있는 모든 과학과 학문을 통달했다.

어느 날 스승이 슈베타케투를 불러 '이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웠으니, 너는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말했다. 그는 스승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그가 막 마을 어귀로 들어섰을 때, 아버지는 창문으로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키가 훌쩍 큰 아들은 자만심에 찬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아들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슬퍼졌다. 진정으로 알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가 돌아온 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다.

“너는 그 동안 많은 학문을 배운 모양이로구나. 내가 너에게 하나만 물어보마. 너는 그것 하나를 앎으로 해서 더 이상 배움이 필요 없고, 그것 하나를 앎으로 해서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그것을 배웠느냐? 다시 말하면, 가르쳐 질 수 없는 그것을 배웠느냐?”

아버지의 느닷없는 질문에 슈베타케투는 당황했다. 그는 스승의 아쉬람에서 많은 지식을 배웠지만 아버지의 질문에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다시 네 스승에게로 돌아가거라. 돌아가서 가르쳐질 수 없는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해라.”

아버지의 명령을 차마 거역하지 못하고 그는 스승의 아쉬람으로 돌아갔다. 그가 스승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 연유를 설명하자, 스승이 말했다.

“내가 가르쳐질 수 없는 그것을 배우고 싶다면, 너는 내 아쉬람에 있는 사백 마리의 소 떼를 끌고 인적이 없는 깊은 숲 속으로 들어가거라. 거기서 어떤 말도 하지 말고 소 떼와 함께 살아라. 그렇게 소 떼와 함께 살다가 사백 마리가 번식하여 천 마리가 되거든 그 때 돌아오너라.”

슈베타케투는 스승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 그는 인적이 없는 숲 속으로 들어가 소 떼와 함께 살았다. 처음 얼마 동안은 수많은 생각들이 그의 마음속을 떠돌아다녔다. 하지만 숲에는 그런 생각들을 토로할 대상이 없었다. 새와 동물들, 나무와 바위와 강과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만 있을 뿐 그 숲에는 그와 이야기를 나눌 대상이 전혀 없었다. 자기 속에 습득된 많은 지식이 있었지만, 그것을 동물들 앞에 내보인다는 것은 어리석고 쓸데없는 짓이었다. 마침내 그는 깨달았다.

‘내가 계속 지적인 아집을 지니고 있다면 이 동물들이 얼마나 나를 비웃을 것인가? 스승님의 말씀처럼 진정한 침묵에 잠겨 보자!’

이런 결심을 한 후에, 그는 이제 나무 아래 무심히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더러는 냇가에서 시냇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낮잠을 즐겼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마음은 점차 침묵 속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여러 해가 흘렀고, 이제는 자신이 언제 돌아가야 할 것인지도 까맣게 잊을 정도로 그의 마음은 편안해지고 고요해졌다. 많은 지식을 자랑스레

여기던 과거는 떨어져나갔고, 과거가 떨어져나감에 따라 미래 또한 떨어져나갔다. 그는 단지 지금 여기에 존재할 뿐이었다.

소들이 천 마리가 되었을 때, 소들은 스스로 불편함을 느꼈다. 그러나 슈베타케투는 모든 것을 잊고 있었다. 이를 눈치 챈 소들이 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기로 했다.

“우리 소들은 이제 천 마리가 되었소. 당신의 스승께서는 우리가 천 마리가 되면 돌아오라고 당신에게 말씀을 했는데, 당신은 이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요.”

소들의 말을 듣고 난 슈베타케투가 껄껄대고 웃었다.

“하하하……그래, 돌아 가자구나.”

그는 비로소 천 마리의 소 떼를 거느리고 스승의 아쉬람으로 향했다. 아름다운 저녁놀이 가없는 평원을 물들이던 어느 날, 스승은 슈베타케투가 천 마리의 소 떼와 함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했다.

“보아라! 저기 천 마리의 소 떼가 오고 있다. 저기 슈베타케투는 없구나.”

스승은 한 마리 짐승이 되어 돌아온 슈베타케투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환희의 춤을 추었다. 그는 슈베타케투를 두 팔로 부둥켜안으면서 말했다.

“이제 너는 가르쳐질 수 없는 그것을 알았는데, 왜 나에게 돌아왔느냐?”

슈베타케투가 공손히 절을 올린 뒤 대답했다.

“저는 단지 스승님께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입니다.”

-<인도 민담>

2) 이름붙일 수 없는 큰 물건이 되라

* 가르쳐질 수 없는 ‘하나’란 무엇인가?

그대 안에 아트만으로 존재하는 자를 알라.

이보다 저 절실히 알아야 할 존재는 없다.

겪는 자, 겪는 대상, 그리고 이들을 조정하는 자

이 셋을 알면 모든 것을 말한 셈이요

그 모든 것은 바로 브라흐만이로다.

—<슈베타슈바라타 우파니샤드>

*** 불멸의 신성에 대해 가르쳐주는 우화:**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에게 소금을 가져다가 물이 담긴 통에 담그라고 한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보자고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소금을 가져다가 물속에 집어 넣는다. 아침이 되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소금을 담갔던 물에서 소금을 꺼내라고 말한다. 물론 아들은 물속에서 소금을 찾아내지 못한다. 아버지가 말한다.

“충명한 아들이야, 너는 지금 물속에서 소금을 볼 수 없다. 그러나 소금은 그대로 그 안에 있다. 물맛을 보려무나.”

아들이 몇 차례 물맛을 보고 나서 말한다.

“아버지, 물이 짭니다.”

아버지가 비로소 아들에게 가르침을 베푼다.

“네가 물속에서 소금을 볼 수는 없지만 그 존재는 여기 녹아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세한 존재,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아트만으로 삼고 있다. 그 존재가 곧 진리이다. 그 존재가 곧 아트만이다. 그것이 바로 너이다. 슈베타케투야.”

—<찬도기야 우파니샤드>

*** 바다[브라흐만]로의 합류:**

강들이 흘러흘러 바다에 도달하면

‘강’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바다와 하나가 되듯

진리를 알게 된 사람은

‘이름’과 ‘형태’의 구속에서 풀려나

신성한 푸루샤에 도달하게 되리라.

—<문다가 우파니샤드>